

제43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 심사총평

서울연극제 심사위원들은 우선 제43회 서울연극제가 별 탈 없이,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치러졌다는 점에서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부터 올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일상의 작은 부분들이 회복되는 시점이었지만 공연 관계자의 확진이라는 돌발 상황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변수였기 때문에 서울연극제를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서울연극제가 진행되는 동안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서울연극제의 모든 참가작은 큰 불상사 없이 예정대로 공연되었고,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받아 매진사례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연극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중한 행사를 소중하게 잘 진행하고 마무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3회 서울연극제는 공식선정작 8편과 단막스테이지 2편이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학로 일대 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공유한 이번 연극제의 중요한 특성은 ‘다양성’이었습니다. 하나의 경향이나 키워드로 정리되지 않는 다양성을 8편의 공식참가작이 제각각 보여주었습니다. 가상으로 그려낸 여성영웅서사와 그 가능성을 질문한 작품, 선악의 우화를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연극적 놀이로 풀어낸 작품, 경계가 없는 자본과 경계가 뚜렷한 난민을 같이 고민하게 한 작품, 역사가 만들어낸 개인의 비극을 말단 권력의 균열로 보여준 작품, 일상을 파고드는 공포의 실체를 냉정하고 서늘하게 형상화한 작품, 노동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노동자들의 연대를 긴 토론으로 증명한 작품, 우리의 고전을 당대 현실로 가져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합의하게 만든 작품, 젠더프리를 통해 고전의 낡음을 흔쾌히 인정하는 동시에 유쾌하게 수정한 작품 등 소재의 폭과 주제의 깊이는 동서양을 넘나들었고 고금을 관통했습니다. 대상이나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고 기발하게 각자의 특색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식참가작 한 편 한 편이 다채로운 연극의 색깔을 뽐내고 있어 공연을 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작품을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극제를 지향했던 예술감독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공연의 즐거움과 반비례해서 심사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공모 당시 제시된 각종 규정들을 확인하고 충분히 공유한 후 심사를 진행했는데, 심사위원들 각자가 서로 다른 작품들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참가작들이 말 그대로 ‘각양각색’이었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혹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절묘하게 공존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고뇌는 깊어졌고 서로 다른 시각과 해석에 대한 간극을 좁혀 나가는 길고 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 시간이 길었음에도 결코 지치지 않고 내내 흥미진진하고 박진감이 넘쳤던 것은 8편의 작품들 모두 수상 후보로서 한 치의 부족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긴 논의 끝에 단체상 수상작과 개인상 수상자들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가 상을 받아도 납득이 되고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작품의 지향과 문제의식, 주제와 형식, 무대 위 각 요소들의 조화가 비교적 안정적인 작품들이 단체상 수상작이 되었습니다. 돋보이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진 앙상블에 기꺼이 재능을 보탠 배우들 네 분이 연기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배우 두 분을 신인연기상 수상자로 선정했는데, 그 후보가 무척 많았다는 것은 연극의 미래가 풍성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무대예술상은 작품 속에 효과적으로 녹아들면서도 본인들의 창의성을 발휘한 디자이너 두 분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라는 것이 작품이 담아낸 가치의 경중이나 완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활동한 연극인과 단체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의미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봅니다. 비록 심사위원들은 그런 의미를 되새기며 심사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가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수상하지 못한 연극인과 단체에게는 역량이 부족하거나 완성도가 미흡한 것이 절대 아니었음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극제를 빛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응원을 전합니다. 수상하신 연극인과 단체에게는 더 할 수 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연극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힘쓴 연극인과 단체에게, 서울연극협회에게, 가득히 자리를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연극제가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이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내년에도 성공적인 서울연극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9일

예술감독(심사위원장) 김승철
심사위원 배선애 손호성 이우천 최진아
(이상 가나다 순)